

“국가주의 호국·세속화역사 교훈삼자”

이웃종교인들, <불교평론> 제56집서 우정의 충고

개신교 박재순 '국가유착 벗어나 상생평화에 앞장설'

가톨릭 오지섭 '불교 정체성 찾아, 현대 종교상황 대처해야'

유교 이기동 '진리 추구의 모습 중요, 유교의 불교 비판서 교훈을'

“원효 스님의 회통정신과 같이 불교가 상생평화의 새 시대 여는데 앞장서 달라.” (개신교 학자 박재순)

“사회변화에 불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현대 종교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가톨릭 학자 오지섭)

“유학자들이 왜 불교를 비판했는가 생각해 보라. 불자들은 불교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순수한 구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유학자 이기동)

2013년 한 해를 정리하는 <불교평론> 겨울호 제56집에서 이웃종교 학자들의 불교를 위한 고언이 실려 눈길을 끈다.

<불교평론>은 특집 '이웃종교에서 보내 온 우정의 충고'를 통해 개신교·가톨릭·유학 등 이웃종교인들의 불교를 위한 쓴소리를 실었다.

“국가주의 유착한 전통에서 벗어나야” 개신교를 대표해 박재순 씨알상상연구소 소장은 “국가주의와 유착된 호국불교

전통이 한국불교의 약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스님들이 의병을 조직해 외적과 싸운 것은 애국관점에서는 의로운 일이지만 국가주의와 결합해 전쟁과 살육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불교는 억불숭유의 조선왕조 기간동안에도 국가주의와 유착된 호국불교 전통을 썼지 못했다. 억압과 학대 속에서도 왕궁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밀착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요인이 한국에서 비폭력·불살생의 불교정신이 뚜렷이 드러나지 못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유교의 불교비판은 문명에서 저물고 있다. 한국불교도 시대 변화에 맞춰 호국불교, 국가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정체성 지켜야 살아남아

오지섭 서강대 종교학과 대우교수는 가톨릭 입장에서 현대 종교상황에는 그 무엇보다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충고했다.

오 교수는 “현대인들은 종교를 절대화하거나 종교를 부정하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교와 가톨릭은 ‘살의 종교’로서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 양상으로 △예곡된 종교 열정 △근본주의 △세속화 △신의 존재와 종교의 의미 부정 △유사종교 현상 △다종교 상황과 종교 간 갈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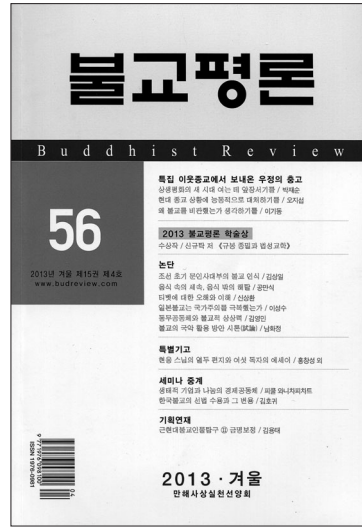
오 교수는 △조율적 인식 제공 △조화와 공존적 인식 제공 △삶의 가치관과 윤리의 식 제공에 불교의 역할이 있다고 꼽았다.

“자칭 불교인은 불교 명목 이득 추구자”

유학자인 이기동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교수는 “왜 불교를 비판했는가 생각하기를 통해 불교의 사원경계가 비뚤어지고 타락하며 대중의 반발을 산 역사를 예로 들고 구도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불교인으로 표방하는 사람은 불교인이 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며 “종교인 이전에 사람이기에 불교인, 유교인, 기독교인 등으로 자기를 속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유교의 불교비판은 불교 이론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출됐던 불교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다”며 “불자



들은 불교의 진리가 훌륭함에도 부작용을 남긴 역사의 교훈을 익히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기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권두언에서 “조계종은 ‘각목을 들고 피 흘리는 싸움을 벌이는 스님들’과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승가공동체 전통을 유지하며 법정과 해인, 템플스테이 등으로 상징되는 치유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현재를 지탱해내고 있다”며 “최근 총무원장 선거 이후 한국불교계가 지닌 양면성을 직시하고 우리를 보는 타자의 시선에도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보자는 게 이번 특집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준제는 불교의 사회 참여 일환이었다”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제2차 세미나서

고영섭 '조선 후기 사회적 역할' 손상필 '승려천인설 잘못된 인식'

“조선 후기 승군총섭제 아래 통솔되어 가는 불교계 현실에서 승려의 부역은 불교계가 조선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승군은 참여불교로서의 호국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승려들의 사회적 역할을 표출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제였다.”

역불숭유의 조선시대, 스님들이 부역을 통해 사회에 불교의 역할을 찾고, 존재감을 부여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12월 5일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호국불교 연구 제2차 세미나에서 주제발제 ‘조선 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를 통해 “조선 후기 스님들은 부역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조선 후기인 17세기 승려가 호적에 등재되는 한편, 배통인식과 수행 체계가 정비되며 문집 간행이 보편화되는 등 위상이 변모했다”며 “이러한 위상변화와 함께 승려들의 사회적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받기 시작했다”고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인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승려들의 존재감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온 유교관료들은 승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불교계 또한 방관자가 아

닌 참여자로서 나서게 됐다”며 “황폐화된 나라의 상황에서 부역은 승려가 사회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조선 후기 스님들은 승역을 통해 조선사회에 존재감을 내내외에 과시했다”며 “특히 승군제도는 참여불교로서의 호국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승려들의 사회적 역할과 역사적 존재감을 표출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평한 손상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조선 후기 승려들의 신분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에 조선시대 승려천인신분설은 틀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 연구원은 “일본인 관학자 다카하시 토우루가 유포한 승려천인신분설은 조선 후기 승려층이 선승과 교학승 등 고위 승려층과 결별해, 비승비승의 재가승 등 하위 승려층으로 구분되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15세기와 16세기에 불교계에 대한 국가지원 축소 및 체제에서의 불교색 배제에도 사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탄압은 없었다”며 “16세기 집필된 <동국여지승람>에 1658개 이상의 사찰이 기록돼 있고, 당시 불교서적 간행이 급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연구원은 “현재 한국불교가 사회(중생)를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려면 불교계뿐 아니라 현대 국가·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유산, 박물관식 원형보존 정책에서 탈피해야”

문화재청·ICCOM 국제포럼서 전세계 학자들 강조

“더 이상 박물관식 원형 보존 정책으로 불교문화유산을 관리해서는 안된다. 공익 시설이라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이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아시아의 불교문화유산, 그 불교도를 보존하다’ 국제포럼에서 불교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제 ‘불교문화유산 특성과 정책 방향’을 맡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사찰과 사찰 주변 자연환경이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가 편법법을 통해 불교계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및 활용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더 이상 공개축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공간을 신축하도록 발상전환을 해야 하며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경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

다”며 “신형 관련 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은 불교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는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은 예불 등 현대도 신형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자원”이라며 “보통 진행되는 문화재로서의 문화유산 관리와 달리 정부와 불교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 신통 중국 세계문화유산사무국 연구원은 중국 장수성 량주 대명사 사재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등 사찰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이 신통 연구원은 “중국 불교계와 량주시의 경우 대명사의 미적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촉강수서국립공원을 지정해 먼저 자연환경 보존에 나섰다”며 “사찰은 사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찰 환경과 함께 조화될 때 문화유산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랜드 실바 이코모스 본부 명예회장은



문화재청이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제포럼에서는 불교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세계적인 휴일 증가 추세에 맞춰 성지순례를 비롯한 불교문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로랜드 회장은 “유럽을 비롯해 세계각국은 이제 주5일제를 넘어 주4일, 심지어 주3일 근무를 바라보고 있다”며 “휴일의 증가 만큼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

화유산 활용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랜드 회장은 또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국민 공감대가 결국 문화재 보존에도 큰 힘이 된다”며 “특히 불교문화유산 안에 담긴 치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15회 진각논문발표회 12월 12일 개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당 정사)은 제15회 진각논문발표회를 12월 12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진각논문대상은 밀교종단인 진각종이 불교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불교 및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제정돼 매년 시상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논문 4편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논문은 △밀교 부법(佛法)의 역사와 유형-당말(唐末) 중국밀교를 중심으로(성제 정사) △회당의 부법(佛法)에 관한 연구(혜담 정사) △유사학과의 불교해석학(황서광) △유가행파의 사십사관(四時悲觀)에 관한 연구-영상(影像)과 의연(意言)의 함의성(含義性)을 중심으로(홍응경) 등이다.

논문발표회는 교육원 교법연구실 상임 연구원 수각 정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표하고 질의하는 토론방식을 채택해 발표회가 최종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최종 논문작성자는 발표회를 통해 논문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 논문들은 ‘회당학보’ 제19집에 게재된다. 김주익 기자 kimj4217@hyunbul.com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학술발표회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템플스테이 이정보넬리 3층 문수실에서 2013년 후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신규택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중양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의 ‘일본불교의 장례의례’ △고경희 한체대 강사의 ‘운심계자법과 향화계자법의 비교 분석’ △장현철 동아시아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원의 ‘한국불교 장례의례의 변화 양상’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동국대 강사 공해 스님, 육천범대학 강사 해사 스님, 구미대 불교민속연구소장이 나선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팔자(사주팔자)가 어떤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배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배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낮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